

## 단기유학 보고서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10학번 김광종입니다.

저는 2013년 여름학기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Technische Universitaet Berlin(TUB)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앞으로 단기유학을 가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을 필요한 시간 순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글이므로 다른 분들의 후기와 함께 보시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출발 전,

### 1. 교환학생, 갈까 말까? 어디로 갈까?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반드시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이야 여기저기 쉽게 다녀볼 수 있지만, 최소 4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는 것은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아보고, 장기간 다른 나라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나라와의 문화차이도 엿보고, 우리나라를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며 이야기하고, 외국의 교육환경을 체험해보는 등 정말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많이 보고, 느끼면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국내 대학교들에 비해 POSTECH은 월등히 높은 지원(장학금 500만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를린을 선택하였는데, 사실 여름학기에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유럽여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유럽에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르웨이는 물가가 너무 비쌌고, 프랑스는 영어 수업이 많지 않았고, 오스트리아보다는 독일이 더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다 보니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유럽치고 물가가 아주 싼 편입니다. 서울과 비교해도 비슷할 정도로, 특히 방값(한 달에 30만원 정도)이나 식료품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베를린이란 곳이 터키인, 베트남인 등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어서 인종차별도 없고 다양한 문화가 섞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독일 지역들과는 달리 밤문화도 발달하였고, 여러모로 대학생이 살기에 편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 여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약간 북쪽에 있긴 하지만, 공항이 잘 발달해 있어서 저가항공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만큼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있을 것이라 생

각됩니다. 아 하지만 겨울(10월~3월)에는 엄청나게 춥다는 점 주의하세요.

## 2. 비행기와 보험

저는 교환학생 발표가 나고 출국하기 3개월 전쯤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국제학생증을 학교에 신청해 만들면, [www.kises.co.kr](http://www.kises.co.kr) 에서 학생 할인으로 저렴한 항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FINair를 이용해서 베를린in(3/4), 마드리드out(8/14) 항공권을 135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에는 학기가 끝난 후,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짐을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짐은 택배로 붙이고 스페인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자는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매하였는데, 교환학생 생활을 해보면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짐을 맡겨둘 친구 하나쯤은 만드실 겁니다. 국제택배비가 꽤 나가기 때문에 여행을 갈 것이라 해도 친구에게 짐을 맡겨놓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짐을 가지고 귀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LIG에 전화해서 그 조건을 말하며 유학생 보험을 신청하였습니다. 6개월에 25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 3. pre-German course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TUB는 우리학교에 어학센터와 같은 ZEMS라는 곳에서 개강 한달 전쯤부터 한 달 동안 pre-German course를 제공합니다. 저때는 160유로였는데, 독일에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독일어는 해야 하고, 이때 교환학생 온 친구들을 모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때는 한국에서 교환학생 온 13명의 학생들이 모두 이 수업을 들어서 이때부터 함께 만나서 같이 놀게 되었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TUB에서 어드미션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 수업도 학점을 주기 때문에 3학점으로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은 매일 세 시간씩 진행됩니다. 수강하시려면 한달 정도 먼저 출국하셔야겠죠? 기숙사도 일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학기가 개강하기보다 먼저 가서 pre-German course를 들으며 서류작업도 하고 독일 생활의 적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4. Buddy Program

TUB에서 어드미션을 받을 때 Buddy Program을 신청하겠느냐는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미리 연락해서 베를린에 도착할 때 pick up을 요청하는 등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거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려고 생각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잘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버디와 오랫동안 연락이 안됐는데 알고 보니 포스텍 메일이 스팸 차단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연락이 잘 안되면 다른 메일도 이용해보세요.

출발 후,

도착하고 거의 열흘 간은 여러 서류작업에 정신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니, 항상 모든 서류들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히 office hour가 일찍 끝나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직원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uddy와 일찍 연락해서 Buddy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처리했던 순서대로 해야 할 작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기숙사 입사

베를린에 도착하면 기숙사부터 들어가야겠죠? 베를린은 학교 별로 기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시가 전체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베를린 안에 여러 대학생 기숙사가 여기저기 분포되어있는데, 자신의 학교와 상관없이 배치를 받는 것이죠. 저는 베를린 극동쪽 Biesdorf역 근처에 있는 Victor Jara로 배정받았는데, 방이 넓고 안에 개인 화장실과 부엌이 있다는 점은 매우 좋았지만, 학교&도심과 거리가 매우 멀다는 점(편도 50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뭐 살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정된 기숙사에 사감인 마에스터의 office hour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기숙사가 배정되고 오는 이메일에 나와 있을 텐데, 대략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정도까지만 마에스터가 있을 겁니다. 마에스터한테 가서 이름만 대면 바로 키를 받아 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도착시간을 평일 아침으로 잡거나 다른 친구 방에서 하루 잔다면 숙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 2. 기숙사 등록

기숙사에 입사를 했으면 기숙사를 등록하러 가야 합니다. 기숙사마다 기숙사를 등록하고 기숙사비를 내는 office가 다를 텐데요, 저는 Ostbahnhof 역 주변에 있는 곳에서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첫 번째 달 기숙사비와 함께 그의 1.5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카드도 가능합니다.

### 3. pre-German course 반배정 시험

자신의 시험시간에 맞추어 ZEMS 건물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만약 독일어를 거의 모르면 그냥 가서 bigginer라고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4. Mensa 카드 발급

Mensa는 학생식당입니다. 아주 싸고 메뉴도 괜찮아서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어드미션과 여권만 있으면 멘자 계산대에서 바로 발급해줍니다. 발급받아서 T-money처럼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5. 독일어 수업비 내기

ZEMS 데스크에서 알려준 곳에서 수업비를 냅니다. 저때는 160유로였습니다.

## 6. 학생회비와 교통비 내기

독일어 수업비를 낸 곳과 같은 곳에서 냅니다.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지만, 이렇게 학생회비와 교통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200유로정도만 내면, 6개월간 베를린 교통 A,B,C 구간을 무료로 무엇 이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7. Proof of Health Insurance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해왔다고 해도, 여기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TUB 멘자(학생식당) 건물 맞은편 가까이에 AO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 서류를 들고 거기 가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종이 한 장에 싸인해서 금방 줍니다.

## 8. 한달 교통권 끊기

Pre-German course를 듣기 위해 개강보다 1달 먼저 왔기 때문에 교통비의 혜택을 아직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달 교통권을 끊어야 하는데요, TUB 학생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rly bird 오리엔테이션에서 서류를 줄 텐데, 못 받았다면 oversea office에 말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독일어로 써있는 어드미션과 사진을 근처역(zoologishergarten 이겠조 아마?) office에 제출하면 신분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 권을 사면 됩니다. 여기 직원들이 거의 영어를 못해서 buddy와 함께 가면 좋습니다.

## 9. 핸드폰

1년 있을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prepaid usim칩을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무 통신사에 가서 prepaid usim칩을 사면 됩니다. O2는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Vodafone 가세요ㅎ). O2는 여러 가지로 속을 썩입니다. 이것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일정 금액을 충전해놓고 전화나 문자를 쓸 때 마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인터넷은 한 달에 15유로씩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500MB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느려지지만 무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0유로를 내고 300MB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10. 거주 등록

베를린 여기저기에 있는 burgeramt(?)에 여권과 기숙사 등록할 때 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특히 office hour가 짧습니다. 일찍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buddy와 함께 가시면 좋습니다.

## 11. 학교 등록

지금까지 처리한 서류들을 가지고 enrollment office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 12. 계좌 개설

교환학생 생활할 때 인터넷, 기숙사 등등 여러 돈들이 빠져나갈 계좌가 필요합니다. 독일에 가장 많은 은행은 Sparkasse로 저희 기숙사 앞에 있어서 저는 여기로 정하였습니다. Deutsch bank도 크고 하니까 자기 집과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거주등록 서류와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13. 인터넷 계약

역시 우리는 인터넷 없이 못 삽니다... 자기 방에서 wifi가 잡힌다면 주변 방들을 두드려보면서 돈 줄 테니 wifi를 share하자고 하세요. 이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인터넷 계약이 정말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기숙사에서 광고하고 있는 hotzone을 신청하세요. 조금 느리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것 또한 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가 다 잘 안 된다고 하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가장 난관이었던 일이 바로 인터넷 계약입니다. 저는 O2와 계약했는데, 정말 다양한 문제로 5개월 동안 대리점을 30번은 찾아간 것 같습니다. O2 직원과 얼굴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되었지요... 아마 어떤 곳과 계약해도 문제가 꽤 생길 것인데 그러므로 집과 가까운 대리점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계약을 할 때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연결할 때까지 최소 4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stick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stick이나 공유기나 다 독일어로 지침이 나오고, step by step으로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도 계약해서 공유기를 받고 인터넷 연결하고 나면 wifi랑 다 빵빵해서 좋긴 좋습니다..

## 14. 학교사이트 계정 & wifi

학교 등록을 하고 나면 얼마 후에 우편이 오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계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 사이트 계정으로 학교 내에서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5.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즉 비자를 받는 것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말기는 건데, 장점은 매우 편하며 슈퍼에콘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두 번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돈만 독일 계좌에 있으면 됩니다), 단점은 4주 정도 동안 여권을 학교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슈퍼에콘토(계좌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 받는 것)를 받아서 직접 관청에 가서 하루 만에 비자를 받는 것인데, 이는 금방 끝

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부터 관청에 가야 한다는 것과 슈퍼에콘토를 위해 큰 돈을 독일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학교에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때 증명사진(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독일에서 찍으셔야 할 것입니다)과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개강,

### 1. 수업등록

이제 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골라야겠죠? 학교 사이트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 중에 들을만한 것들을 7개~10개 정도 골라둡니다. 그리고 첫 수업시간에 모두 들어가보면 들어선 안될 것 같은 과목이 꽤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외하고 3~4개정도 선택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종이를 돌리면 거기에 이름을 적는 것으로 수업 등록은 끝납니다. 교수님한테 교환학생이라고 끝나고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업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는 TUB에 영어수업이 많이 개설되는데 비해 다른 과들은 사실 영어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정하는데 고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4개의 대학교 TUB, HUB, FUB, KUB에서는 서로 guest student가 되어 수업을 수강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TUB에서는 Manag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Methods and Tools(4SWS)만 수강하였고, HUB에서 Marketing of Innovation(2SWS), Marketing Management(2SWS), European Economy History(4SWS)를 수강하였습니다. Guest Student가 되려면 그 학교의 캠퍼스 센터에서 받은 종이에 각 과목의 교수님과 학과에 싸인을 받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HUB 경영경제학과에 영어수업이 많답니다.

### 2. 시험신청

여기는 대부분 기말고사만 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교환학생인데 어떻게 시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쭙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과목마다 제각기 널려있어서 출국 날짜 전에 시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길 바랍니다.

### 3. 성적증명서(Schein) 받기

시험을 본 후에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성적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전에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메일로 받아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 1. DB 반카드 해지

사실 독일에서는 여행을 다닐 때 버스가 아주 저렴합니다. 독일 기차는 매우 비싼 편인데, 이 DB 반카드를 구입하시면 할인 받아서 여행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어이없게도 유효기간이 6주에서 8주 남은 사이에 해지를 편지를 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되며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냥 카드 만들지 마시고 기차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2. 인터넷 해지

독일의 대부분의 해지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해지하기 한달 전쯤에 계약했던 대리점에 가서 해지하겠다고 하면 편지를 뽑아서 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직접 우체통에 넣어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전화와 함께 확인 편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유기를 다시 편지에 온 내용대로 돌려 보내시면 인터넷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 3. 기숙사비 현금으로 내기

마지막 달 기숙사비가 빠져나가기 전에(보통 그 전달 말에) 기숙사 등록을 했던 곳에 가서 현금으로 마지막 달 기숙사비를 내셔야 퇴사하는 날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닫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마에스터가 우편에 알려주었던 날짜에 방문을 해서 방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퇴사 날짜를 말해주고, 퇴사할 때 마에스터한테 확인 받고 키 반납하고 다시 기숙사 등록을 했던 곳에 가서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 4. 거주 등록 취소

거주 등록한 곳에 가서 거주 등록을 취소하면 됩니다.

### 5. 은행계좌 닫기

은행 계좌도 닫아주세요.

### 6. 학생증 반납

학생증을 반납하는 이유는 6개월에서 남은 달 수만큼 교통비를 환불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4월에 개강했는데 7월에 떠난다고 하면, 8월과 9월의 교통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 센터에 가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1. 여행

저는 학기 중에 독일과 영국, 체코, 벨기에, 헝가리, 스위스를 여행하였고, 이제 곧 학기를 마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으로는 베를린이 다소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 저가 항공이 가장 괜찮은데, 여행하기 1.5달 전쯤에 예약하시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저가는 Ryanair인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는 편이고, Easyjet이 가장 큰 저가항공 회사입니다. Skyscanner를 통해 저가항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를 제외하면 비행기 값은 왕복 10만원 정도, 하루 비용은 7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유럽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2. 돈

비행기와 보험 값으로 1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착하면 이것저것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첫 달은 200~300만원 정도(보증금 포함) 든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값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40~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잘 안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일~10일 정도는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원 이상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탈리아, 스페인 여행까지 모두 마치면 5개월 반 동안 총 1200만원 정도 쓸 것 같습니다.

### 3. 날씨

베를린이 북쪽이기 때문에 겨울이 상당히 길고(10월~3월)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해도 잘 안 비치기 때문에 겨울학기는 굉장히 우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시원한 편입니다. 비는 보통 내려도 찻끔찻끔 썩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학기를 추천합니다.

### 4. 짐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힘들고 돌아올 때 후회합니다. 수명 다 되가는 옷들 가져가셔서 올 때 버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주방도구 같은 생활용품은 IKEA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가져오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베를린은 여름날씨가 거의 없고 여름용 옷들은 저렴하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 겨울 옷을 많이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발이 비싸기 때문에 신발은 잘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제 영혼을 담은 후기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